

# 동아시아 전통 회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소고

오혜진

## I. 머리말

吳惠珍

한국미술연구소 연구원  
대만 국립타이난대학  
예술창작이론연구소 박사반  
박사과정  
동아시아미술사

1995년 『문화예술』189호에 ‘정보고속도로에 실릴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이라는 특집이 기획되었다. 이 시점은 한해 전 수립된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2015년도까지 이어지는 이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때이다.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응해 다양한 의견들과 예측,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특집 또한 그 일환으로 “국가기반 구조 기획으로서의 초고속통신망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핵심기술,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요약하고, 정보유통과 문예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되었다.<sup>1</sup> 해당 호에는 당시 예술의 전당 홍보출판부 차장이었던 황동렬의 논고도 실렸다.<sup>2</sup> 그의 글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

\* 필자의 최근 논저: 「〈生〉之符號: 韓國戰爭時期聯合國軍對中共軍的傳單」, 『藝術觀點ACT』83, 國立台灣藝術大學, 2020. 10; 「경성에서 프로 미술가가 되는 법」,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창작』, 한국미술연구소, 2018; 「경성에서 여성미술 배우기」,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창작』, 한국미술연구소, 2018.

1 최기선, 「정보고속도로란 무엇인가」, 『문화예술』189(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5), 페이지 없음.

2 황동렬, 「미술화상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의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문화예술』189(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5), 페이지 없음.

면 다음과 같다.

미술정보화의 문제는 미술품의 본질적 특성인 비언어적 실체가 어떠한 언어적 묘사나 목록의 기술상의 기법으로도 미적 대상물에 대한 시각적 개념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미술정보의 바람직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미술품 그 자체를 가장 본질에 가깝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와의 접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미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미술정보 도큐멘테이션과 화상정보의 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법을 경계시켜 다양한 미술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다원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미술이미지 베이스 IMAGE-BASE의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그러나... 미술품의 주제와 의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의 연구결과가 중요한 정보로 수용될 수 있으나 방대한 양의 작품에 대하여 전문인력이나 작업기간, 예산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정보의 내용이 연구자의 주관이나 연구의 심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기도 한다.<sup>3</sup>

위의 언급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 논고는 미술화상정보, 즉 작품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관련된 제반의 사항들 속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들을 매우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논점들은 미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미술은 본질적으로 비언어적인 시각매체이며 디지털의 세계는 표준화된 규칙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엄밀히 따지자면 디지털은 숫자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는 결국 자연언어를 본뜬 마크업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등으로 이루어지며, 작동원리 또한 언어적 논리로 구성되고, 다루어지는 정보 값들 또한 언어, 즉 텍스트의 형태이다. 비언어적인 대상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의 해석이 개입하게 되며 그러므로 미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해석하여 의미화시키는 인문학적인 속성을 가진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디지털 기술이 약속된 보편적 정의

---

3 위와 같음.

와 규약에 따른 고정되고 정제된 데이터를 요구한다면, 인문학은 특유의 모호함과 불명확함에 특징이 있는 분야이다.<sup>4</sup> 특히 미술사, 그중에서도 회화사는 연구자의 대상에 대한 주관적 생각이 담긴 창작물이(주로 논문) 연구결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재현 대상의 신원이나 제작자, 제작시기 등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더라도 그림이 가진 비언어적 특성에 따라 절대적인 객관성을 가진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다시 말해 회화사의 연구결과가 디지털 방식으로 가공되기에는 기본적인 성질의 차이가 크다.

동아시아의 전통 회화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혹은 다른 형태의 디지털화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어려움은 더해진다. 예를 들면 진위 논란이 있는 전직작들이나 인문학적인 성격이 더욱 강한 문인화 등 절대값을 가진 정보로 처리하기 힘든 요소들이 많으며, 무엇보다 전통시대 회화의 창작과 감상 관습, 즉 회화문화의 전통이 근대기를 거치면서 현대와 어느 정도 단절되면서 해석의 문제는 더욱 다양하고 주관적으로 되었다. 게다가 디지털의 처리방식이 근본적으로 복잡한 사실들을 부분으로 분할하고 단순화하는 근대 서양의 환원적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동양의 전통문화, 특히 사고체계와의 호환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동아시아 회화 연구가 디지털화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고해봐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판단은 가부를 떠나 현시점에서 무의미한 질문에 가깝다.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고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미 우리 사회 전반은 컴퓨터와 웹을 기반으로 한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조금씩 다른 용어로 그 현상은 새롭게 환기된다. 마찬가지로 학문 연구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디지털 기술을 도구로 이용하며 결과 또한 디지털 형식으로 도출되어 활용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문학과 디지털의 관계와 그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학문인 디지털인문학 영역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인문학이 '동시대적인 인문학'에 가까운 의미를 담는다고 강조한다.<sup>5</sup> 즉, 디지털화는 적합성에 의해 선택되는 경로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현재 세상의 맥락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전통 회화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모호함과 불명확함,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몇 가지

---

4 박치완 외, 『디지털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시대 인문학에 대한 진단과 전망』(꿈꿀권리, 2015), p.8.

5 위의 책, p.7.

한계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부분 필자가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다. 그렇기에 이 글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나 전망을 예측하기보다는, 실제 업무를 해나감에 있어 미술사 전공자가 경험하게 되는 문제와 그에 관한 생각들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겨 유의미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 II. 주제전문가로서의 미술사 전공자

동아시아 전통 회화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미술사 전공자가 주로 맡게 되는 것은 주제전문가(Subject-matter Expert, SME)의 역할이다. 주제전문가란 특정한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기술전문가가 내릴 수 없는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데이터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값과 값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목적에 따라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일반적으로 주제전문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은 여기까지이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술적으로 구성하고, 저장, 관리,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이나 실제 활용되는 형태로 구현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는 기술전문가의 영역이다. 다시 말해 주제전문가는 주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의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각 데이터 간의 관계가 학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의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개념적인 토대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가지 사례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검색 서비스를 보면, 각 소장품의 명칭, 다른 명칭, 국적/시대, 재질, 작가, 분류, 소장품번호, 상세설명, 이미지파일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값을 수집·제공하고 있다.<sup>1)</sup> 주제전문가는 이러한 항목들처럼 소장품에 대해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 때 목적과 가장 부합하게 데이터의 특성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지를

1  
국립중앙박물관 웹페이지  
소장품 검색 결과 화면



확대보기 
다운로드

중요

### 폭포를 바라보는 선비

다른명칭	觀瀑圖
국적/시대	한국 - 조선
재질	종이
작가	장시흥(張始興)
분류	문화예술 - 서화 - 회화 - 일반회화
소장품번호	덕수 2014

---

\*만종명음학 비전각고택(晩鐘鳴陰齋 飛泉落音齋) 라는 그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단풍이 든 늦은 가을 날의 관폭도(觀瀑圖)이다. 산 사이 계곡으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와 바위 위에서 서 있는 소나무, 폭포를 바라보고 있는 인물들, 바위에 걸터앉아 피리 부는 소년의 모습이 어우러져 그림의 맛을 한층 더하고 있다.



고민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항목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에 대한 개념적 도식을 창안하고 기술전문가, 즉 개발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향후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사용자에게 제시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가지는 것이 효과적인 구조를 짜는 데 도움이 된다.

주제전문가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데이터값의 표준화이다. 각 항목의 데이터들은 일관된 규칙에 따라 정제되어 입력되어야 한다. 특히 같은 의미의 데이터값을 기계가 동일한 값으로 읽도록 해야 하므로 '작가명의 경우 <한글(한자)>로 표기한다'라는 식의 규칙을 정해야 한다. 만약 같은 작가의 여러 작품의 소장정보를 작성할 시 작가 명칭을 '장시흥(張始興)' '장시흥,' '張始興,' 등으로 각기 다르게 표기한다면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자 할 때 데이터를 다시 검수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예시의 데이터베이스는 국적/시대, 출토지, 재질을 선택해 데이터를 소팅(sorting)할 수 있는 브라우징 검색기능과 데이터값들에 대한 텍스트 검색을 통해 자료 접근을 설계한,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후 문서에서 문서를 연결해 주는 하이퍼텍스트 기능이나 더 정교하게 세분화된 브라우징 검색기능 등을 활용해 다층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개념적 구조(기계적 구조가 아닌)에서부터 표기 방식에 대한 표준화된 세칙까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며 유의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참여자가 맡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다. 전문성이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대부분 한정된 시간과 자원이 주어지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구조와 세칙,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값의 입력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적게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예시에서의 상세 설명처럼 작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라도 그 내용은 전체가 단일 데이터값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있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영향을 주기 어려우며 이후 수정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주제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한편 인문학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라도 이미 구조화된 텍스트의 전자화가 주된 목적인 사업이라면 주제전문가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이나 족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했을 때, 그 개념적 구조나 항목들의 구성은 원자료에 이미 내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에 많은 자원을 들일 필요가 줄어든다. 2005년도에 발표된 이훈상의 논문 「朝鮮時代 畫員과 寫字官, 그리고 兩班 出身 書畫家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그 구도」는 미국의 한국학 학자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 Wagner) 교수가 작성한 조선시대 화원과 사자관의 일람표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구조화된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 또한 디지털로 이식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sup>6</sup>

동아시아 전통 회화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시 관련된 문헌 기록이나 기존에 이미 정리된 자료를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목적이라면 앞서 열거한 주제전문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료에 종속된 형태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얘기가 달라지며, 비언어적 매체인 회화를 언어로 표현하려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은 여기서 부각된다.

### III. 데이터베이스의 인문학적 속성

필자는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 선정 토대연구지원사업 <동아시아 화제의 집성 및 해제 DB 구축> 사업에 보조연구원으로 데이터를 수집·정리·입력하는 일련의 작업에 참여했다. 주로 각 기관에 소장된 작품의 목록이나 문헌에 남아있는 그림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어떤 데이터를 화제(畫題) 항목에 넣을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화제는 “그림의 주제나 제재 혹은 그림의 제목으로, 작가가 창작 의도와 주제 및 내용에 의거하여 짓거나, 동시대의 감평자가 제발문이나 제화시 등을 통해 붙인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림의 제목, 주제, 제재, 혹은 그림에 적혀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텍스트, 다시 말해 문자언어로 표현된 그림에 대한 정보 전체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국가, 시대에 따라 화제라는 용어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며 사전적 정의 역시 통일되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화제는 매우 복합적인 층위를 가진 개념으로 디지털의 정보처리방식이 요구하는 단일 요지만 남긴 단순한 환원적 성격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화제 항목의 데이터값으로 입력할 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대상에

6 이훈상, 「朝鮮時代 畫員과 寫字官, 그리고 兩班 出身 書畫家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그 구도」, 『미술사학연구』246 (2005. 9), pp.117-137.

대한 표준화된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그 자체로 연구주제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임의로 정의를 단순하게 설정한다고 해서 복잡함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화제에서 다른 의미를 탈락시키고 그림의 제목만을 항목에 대한 데이터값으로 여긴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그림의 제목을 정의해야 하는 문제가 떠오른다. 더군다나 회화에서 제목이라는 개념이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아시아 전통 회화에서의 제목의 의미가 더욱 모호해진다. 앞에서 살펴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예시로 돌아가자면,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작품의 명칭은 〈폭포를 바라보는 선비〉이며 다른 명칭으로는 〈관폭도(觀瀑圖)〉를 들고 있고, 해설에서는 그림에 적혀있는 시 구절 ‘만풍명음학 비천락고태(晚楓鳴陰壑 飛泉落苦苔)’가 제목이라 설명하고 있다. 항목의 정의와 데이터값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칭과 제목이 어떠한 기준으로 붙여졌는지를 유추해서 일괄 적용을 해야 한다. 이 작품의 화면에는 폭포와 함께 바위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는 선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다리를 건너는 두 선비나 피리를 부는 소년, 암산과 중경의 나무 등 여러 요소가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 제재 중 폭포를 바라보는 선비를 제목으로 삼은 기준을 이것만으로 알아내기 힘들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족자의 배면이나 보관함 등 외부에 그림을 지칭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경로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기준으로 삼기 여전히 힘들다. 마지막으로 ‘만풍명음학 비천락고태’처럼 화면에 직접 쓰인 텍스트를 제목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에 적힌 글이라도 실제 그림이 묘사하는 바와 연관성이 없거나, 마찬가지로 작가의 의도와 무관할 수 있다.<sup>7</sup>

동아시아의 전통 회화 문화에서 그림을 지칭하는 이름은 작품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문헌 기록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선화화보(宣和畫譜)』(1120)는 위진시대에서 북송 휘종시대까지의 사이에 존재하던 회화작품과 이를 그린 화가들을 소개하면서 6,396개의 작품의 명칭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sup>8</sup> 다만 이 작품명들은 당연히 현대적 의미의 제목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각 작품을 개별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닌 특정 대상을 재현한 종류의 그림으로 분류하는 성질을 가진다. 예를 들어 당나라의 이름난 인물화가 주방(周昉)의 소개하면서 “〈천지수삼관상(天地水三官像)〉 6점, 〈오성진형도(五星眞形圖)〉 1점, 〈오성도(五星圖)〉 1점, 〈오요도(五翟圖)〉

7 오혜진, 「조선 후기 남종화풍 문인산수화의 모방과 창작」, 『미술사논단』42 (2016. 7), pp.72-73 참조.

8 신영주 등 역, 『선화화보: 북송 휘종의 회화 인물사』 (문지향, 2018), p.6.

1점, 〈사방천왕상(四方天王像) 4점 …〉과 같은 방식으로 마치 묘사한 대상의 종류와 그 작품수를 나열하고 있다.<sup>9</sup> 즉, 문헌에서는 그림이 고유한 제목이 아닌 대표적인 제재, 혹은 세부 장르로 주로 기록되었다.

현대미술에서는 작품의 제목이 고유성을 가지며 그 제목에 의존하여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제목 자체가 시각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서양회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근현대기에 동아시아에 유입되었다. 그런데 현대적 의미의 작품 제목은 서양에서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개념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2015년에 미국 예일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 루스 예젤(Ruth Yeazell)이 *Picture Titles: How and Why Western Painting Acquired Their Names* 라는 흥미로운 연구서를 발표했다.<sup>10</sup> 책은 제목 그대로 서양회화에서 어떻게 그림의 제목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는지와 그 이유를 추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젤은 그림 제목의 등장이 인쇄문화의 발달과 회화가 대중적 감상의 대상으로 변환되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미술품이 주로 부유한 후원자의 주문으로 제작되었던 르네상스 시대 전후까지는<sup>11</sup> 그림에 묘사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따로 기록해 둘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그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만이 작품을 감상했기 때문이다.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자신의 왕궁이나 저택에 벽에 그려진 그림들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그림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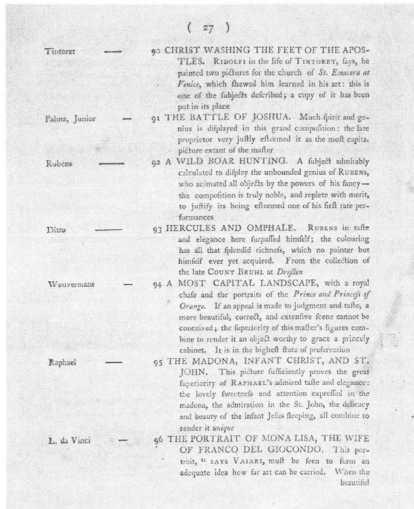
그림의 제목과 유사한 형태의 텍스트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서양회화에서 캔버스에 등장하여 작품의 이동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작품에 대한 도상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 의해 감상되던 그림은 이제 일종의 동산으로서 다른 장소로 옮겨져 기존의 맥락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 거래되고 감상되었다. 이때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물품 목록의 형태로 작품에 대한 짧은 설명이 글로 쓰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7세기 네덜란드의 한 사망자의 재산목록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림 한 점, 바니타스 한 점, 풍경화 한 점, 음악가 그림 작은 것 두 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재의 종류와 해당하는 작품 수를 기재한 방

---

9 위의 책, p.170.

10 Ruth Yeazell, *Picture Titles: How and Why Western Painting Acquired Their Name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15).

11 위의 책, p.27.



2  
『조슈아 레이놀즈 경  
(Sir Joshua Reynolds)의  
소장품 경매도록』 중 일부  
런던 크리스티 경매사  
1975  
미국 예일대학교  
베이네펠 레이북 도서관 소장

식은 앞서 살펴본 『선화화보』와 매우 유사하다.

제목의 발달은 전시문화와 미술시장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 예젤은 살롱전이나 경매장의 작품 카탈로그, 중개인의 작품 목록 등이 인쇄 제작되면서 작품에 대한 짧은 설명이 마치 새로운 문학 장르처럼 등장했다고 말한다. 초기에는 긴 문장의 설명 문으로 구성되었지만, 앞에 표제어와 같이 간단한 구절을 두거나 아예 한 줄로 요약된 설명이 선호되기도 했다. 또한 혁명과 개혁을 통해 유럽의 아카데미 전시들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되기 시작했고,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대중들의 감상을 돕기 위해 작품 제목이 제공되기 시작했다.<sup>2)</sup>

한편으로 동판화 시장의 성장도 그림에 텍스트로 된 제목이 붙는 관습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종이에 그림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그림인지를 밝히고 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쇄업자와 판매자들은 동판화의 상품가치를 올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서양미술에서 제목의 개념이 탄생했고, 20세기에 들어서자 이 새로운 언어매체와 시각매체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작품의 의미를 더하는 사례들이 늘어났고, 제목은 현대미술에서 작품을 읽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림 제목의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기에 동아시아에 유입되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확히 어떤 것을 동아시아 전통 회화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 역시 쉽게 도출할 수 없다. 또한 근대기 이후에 새롭게 붙여진 현재까지 전통 회화의 ‘제목’으로 알려진 텍스트들이 얼마나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다.

『선화화보』와 서양회화에서 그림의 제목에 관한 예젤의 연구,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회화의 제목에 관한 문제는 본고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 보일 수도 있으나, 미술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단일 항목을 정의하고 그 데이터값을 표준화하는 데 필요한 연구의 범위를 엮볼 수 있게 해준다. 반드시 화제를 그림의 제목이라 상정하지 않고, 주제나 제재로 본다고 하더라도, 화면에 표현된 수많은 요소들 중에 무엇을 대표적인 것으로 선별할지의 기준이 필요하며, 다르게 정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가지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미술사적 연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언급한 미술을 주제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필연적인 인문학적 속성과 연결된다. 이미지를 언어로 완벽히 재현하는 방법이 없듯이 “어떠한 언어적 묘사나 목록의 기술상의 기법으로도” 비언어적이며 시각적 개념으로 이루어진 미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그렇기에 인문학적 해석에 의존해 윤곽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IV. 다시 원자료 데이터베이스로

그런데 위의 논의를 거치면서 다시 드는 의문점은 데이터베이스의 단일 항목을 정의하고 그 데이터값을 표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율성이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기간은 길어도 3~5년 사이이며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그에 따른 인력도 한정적이다. 게다가 단순한 입력 작업 역시 어느 정도 미술사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급인력을 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제’라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항목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무한정에 가까운 시간과 자원이 투자될 수 없으며, 또한 화제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해석의 비중이 높은 항목일수록 그 정의를 확정시키기가 어렵다.

황동규의 글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미술화상 그 자체를 이미지베이스로 구축하고, 화상검색을 위한 데이터는 미술품의 의미나 주제보다는 일반적이고 경험에 의존하는 목록 정보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sup>12</sup>

즉, 인문학적 해석이 최대한 배제된 객관적 성격의 항목만을 수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곧 심화된 주제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미술과 관련된 디지털 사업들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원자료 성격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

---

12 황동열, 앞의 논문, 페이지 없음.



3  
대만 고궁박물원 웹페이지  
서화전장자료검색계통  
(書畫典藏資料檢索系統)  
결과화면

미에서는 이미 구조화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장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데이터베이스화했다는 점에서 이후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서화전장자료검색계통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항목은 이미지 파일을 비롯해 소장품의 유형, 작품번호, 작품명(소장기록 기준), 작자, 서체, 채색종류, 표구방식, 제작시기, 수량, 작품언어, 집총호 정보, 뜻풀이, 크기, 재질, 제발정보, 낙관 정보, 제재(주제), 기법, 이명칭, 참고자료에 달한다. 작품과 관련해서 물리적으로 파악 가능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입력해 놓았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토대로 있을 때 확장 가능한 사업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낙관 정보 데이터값을 머신러닝 기술에 대입시켜 낙관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 또는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주어진 다양한 텍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망을 넓힐 수 있다. 이렇듯 폭넓은 객관적 원자료의 수집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더 큰 창조적 상상력의 공간을 열어준다. 다만 서화전장자료검색계통이 1992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이며 수많은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 V. 다양한 시간성과 공간성의 개입

동아시아 전통 회화에 관한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마

태의 사업 역시 많은 투자를 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구조와 데이터값의 표준화에 들이는 자원을 줄이고 객관적 정보의 입력에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참여하면서 접한 동아시아 전통 회화 관련 서비스들 중 이러한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은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서 제공하는 '서화전장자료검색계통(書畫典藏資料檢索系統)'이다.<sup>3)</sup> 고궁박물원의 소장품들은 자금성에 수장되어 있던 중요 유물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의

련되었을 때 미술사의 연구 방식은 더욱 다양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를 기반으로 특화된 주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미술사적 연구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디지털인문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콘텐츠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sup>13</sup>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가 필요한 정보를 거르고 다듬어 의미 있는 콘텐츠로 엮어내는 큐레이션 작업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술 영역에서 이러한 콘텐츠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10만여 점이 넘는 작품의 이미지와 작가, 시대, 소장처, 크기 등 관련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컬렉션, 관련 역사적 사건, 인물, 재료, 화파, 색상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엮어 블로그 형태의 테마가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다.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돌아와서, 미술사 전공자 입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실험적 연구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주어진 원자료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데이터들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 자체가 연구 결과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제 사업에서는 제재, 형식, 주제 등 서로 다른 기준으로 범주화된 유형들이 같은 계열 안에 혼재되면서 명확한 체계를 이루지 못한 동아시아 전통 회화의 유형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화문, 화과, 화목의 세 계열로 나누어 기존에 혼용되던 갈래용어들을 정리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화하는 시도를 했다.<sup>14</sup> 또한 서로 연관관계에 있는 화제들끼리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활용해 보기도 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형식의 미술사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인문학 연구는 글쓰기에 바탕을 둔다.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사고를 정리해 논리적으로 구성한 글이 연구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이 개인적이며 한 방향의 시간성을 가진다. 즉, 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정된 순서로 소비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시간성을 가진다. 데이터베이스는 정해진 순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자료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소비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결과를 가공해야 한다. 공간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

13 박치완 외, 앞의 책, p.74.

14 이 설계 방식은 홍선표, 「화문과 화제의 분류체제」 『미술사논단』46 (2018. 6)의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되었다.



요소이다. 이때 공간성은 데이터베이스가 구현되는 디지털 공간, 웹 공간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여러 계열의 데이터가 서로 조합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탄생하게 되는 개념적인 공간도 포함된다. 즉, 기존의 연구형식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흐름을 넘어서 변화하는 매체에 따른 새로운 연구 개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동아시아 전통 회화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생각해볼 만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미술사 전공자로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주제전문가로서의 역할과 데이터베이스의 인문학적 속성으로 인해 생기는 한계, 원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과 다양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고려한 연구의 중요성으로 정리 할 수 있겠다.

디지털로 모든 것이 방향 전환을 하는 흐름 속에서 가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동아시아 전통 회화, 더 나아가 미술 전반의 원자료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구축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자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미래의 학문을 주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시각 이미지의 본질적 특성은 중심 매체가 변화한 후에도 새로운 인문학적 해석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언어로 완벽히 대치될 수 없으며 우리의 말은 언제나 미끄럽기 때문이다.<sup>15</sup>

### 주제어 Keywords

동아시아 전통 회화 East Asian traditional painting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디지털인문학 Digital Humanities 주제전문가 subject-matter expert 연구의 시간성과 공간성 temporality and spatiality in research

투고일 2021년 9월 30일 | 심사일 2021년 10월 25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20일

15 H. B. 애덤스 저, 김종순 역, 『헨리 애덤스의 교육』(태학사, 2004) 참고; 김광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책신판(철학과 현실사, 2007), p.39에서 재인용.

- 박치완 외 Park, Chiwan, et al., eds., 『디지털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시대 인문학에 대한 진단과 전망 *What is Digital Humanities?: Diagnosis and Prospects for Humanities in the Digital Age*』, 서울: 꿈꾸권리 Seoul: Ggumggulgwonli, 2015.
- 신영주 등 역 Sin, Yeongju trans. 『선화화보: 북송 휘종의 회화 인물사 *Xuanhe Huapu: The History of Painting Characters in the Northern Song of King Huijong*』, 서울: 문자향 Seoul: Munjahyang, 2018.
- 오혜진 Oh, Heyjin 「조선 후기 남종회풍 문인산수화의 모방과 창작: 화보의 분류 체계와 그 수용 Imitation and Creation of Late Joseon Period Southern School-style Literati Landscape Paintings : The Acceptance of Painting Manuals' Categorizing System」, 『미술사논단 *Art History Forum*』42, 2016, pp.59-82.
- 이훈상 Lee, Hoonsang, 「朝鮮時代 畫員과 寫字官, 그리고 兩班 出身 書畫家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그 구도 The Construction of Databases on Academy Painters, Scribes, and Literati Painters and Calligraphers of the Joeson Dynasty」, 『미술사학연구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46, 2005, pp.117-13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문화예술 *Culture & Art*』18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1995.4.
- 홍선표 Hong, Sunpyo, 「화문과 화제의 분류체계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ainting Divisions and Painting Subjects」, 『미술사논단 *Art History Forum*』46, 2018, pp.7-23.
- Ruth Yeazell, *Picture Titles: How and Why Western Painting Acquired Their Name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15.

## On Database Construction for East Asian Traditional Paintings

Oh, Heyjin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ambiguity that emerge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database on the subject of East Asian traditional painting, and several limitations caused by those obscurities. These difficulties stem from the fact that art is essentially a nonverbal visual medium and the world of digital is based on standardized regular language. To this end, the paper discusses art historians' role as subject-matter experts, the humanities attributes of art-related databases, the necessity of raw-data databases, and the importance of research considering various temporality and spatiality. Most of the specific details mentioned are based on the writer's personal experience in working on a database construction project as an assistant researcher. Therefore, there are clear limitations in the level or depth of concern, and the purpose of the paper is far from evaluating or predicting prospects from a macro perspective. Rather, it aims to articulate thoughts on the practical difficulties an art historian could go through while working on a digital-related project, and thereby seek to further the understanding on this matter.

